

高句麗 開國神話의 英雄傳承의 성격

金 杜 珍*

- I. 머 리 말
- II. 開國神話의 내용
- III. 英雄傳承의 강조
- IV. 太祖王系 征服王朝의 등장
- V. 地神族 信仰의 흡수
- VI. 맺 음 말

I. 머 리 말

檀君神話와 高句麗 開國神話의 구조는 비슷한 면을 많이 지녔다. 두 신화에서는 天神과 地神이 결혼하여 그 자손이 국가를 이루는 모습이 비슷하다. 그러나 단군신화는 選擇된 選民의식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면,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는 英雄傳說的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곧 天帝의 자손인 朱蒙이 帶素의 형제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새로운 천지를 찾아 떠나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영웅전설적 성격은 東明型신화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나타난 영웅전설적 성격이 갖는 의미를 초기 고구려 국가의 발전과정 속에서 추구해 보려는 것이 本稿의 목적이다.

고구려 개국신화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東明型신화는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기록되어 있지만, 〈東明王篇〉에는 소상하게 나타나 있다. 그 밖에 간략하지만 《論衡》이나 《三國志》魏書의 夫餘傳 등 중국 문헌에서는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전승된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本稿에서는 고구려 開國神話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고구려 개국신화의 비교적 자세한 모습과 함께 琉璃 始祖傳承이나 溫祚·沸流 시조전승을 함께 제시하여, 그것이 모두 영웅전설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 國民大學校 國史學科 教授.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영웅전승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초기 고구려 국가가 정복 국가체제를 갖추어 가는 과정과 연관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 개국신화의 영웅전승은 초기 고구려왕실의 지배세력이 교체되면서, 정복국가 체제를 정비해가는 太祖王系の 등장과 연관하여 분석될 것이다. 그런 다음 고구려가 聯盟王國 내에 흡수되거나 복속된 성읍국가나 부족세력의 地神族 시조전승을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편입시키는 모습을 부각하고자 한다.

사실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는 많은 시조전승이 흡수되어 있는데, 개중에 地母神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것도 있지만, 신화적인 전승의 모습이 거의 완전히 탈락되어 버린 것도 있다. 고구려 개국신화는 왕실이 받든 天神과 그 외의 여러 지신족 시조전승을 정연하게 묶어 조직했다는 인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어찌면 그 속에 흡수된 여러 시조전승은 부족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제사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이런 모습은 三韓시대의 蘇塗신앙을 어느 정도 殘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달리 추구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II. 開國神話의 내용

고구려 개국신화는 동명형신화에서 유래하였다. 고구려 시조 東明王은 성이 高氏이고 이름은 朱蒙이라 하였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동명과 주몽은 구별되는 인물로 이해되고 있다. 동명에 관한 설화는 주로 중국 문헌에 나타나 있는데, 그는 한결같이 夫餘國의 시조로 등장하였다. 이에 비해 朱蒙은 고구려의 시조였다. 다만 고구려도 부여의 別種으로써 그 出自에서부터 부여와 얽히면서 양국의 개국신화가 서로 혼용되기에 이르렀다.

동명형신화는 본래 부여국의 개국신화였지만, 東北亞의 여러 국가는 물론 백제의 개국신화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만주를 비롯한 동북아 일대에 널리 퍼져 있었던 개국신화의 모형이 되었다. 동명형신화의 전형적인 모습은 《魏略》에 전하는데 다음과 같다.

옛날 북방에 曩離國이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의 侍婢가 임신을 하였다. 왕이 의심하여 죽이려 하자, 婢가 말하기를 “계란 만한 氣가 나에게로 내려와 이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했다.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왕이 그를 돼지우리에 버리니 돼지가 입김을 불어 주었다. 마굿간으로 옮기니 말이 氣를 불어 넣어 죽지 않았다. 왕은 天帝의 아들이라 생각하여 그의 어머니로 하여금 거두어 기르게 하고, 이름을 東明이라 하였다. 일찍이 말을 치게 하였는데 동명은 활을 잘 쏘았다. 왕은 나라를 빼앗길까 두

러워 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다. 동명이 도망하여 施掩水에 이르렀는데,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서 다리가 되었다. 동명이 건너자 고기와 자라가 흩어졌으므로, 추격병이 건너지 못하였다. 동명이 因하여 夫餘 땅에 都邑하였다.¹⁾

《三國志》魏書 東夷傳의 夫餘條에 分註로서 인용된 동명형신화는 《위략》이나 또는 舊志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위략》 외에 《삼국지》 이전의 《後漢書》나 後漢 初 王充이 지은 《論衡》에 비슷한 내용의 동명형신화가 전하고 있다. 이 세 곳에 나오는 동명형신화는 국명이나 지명이 조금 달리 나타나긴 했어도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아마 그 전형적인 모습은 《위략》에 전하는 것이었는 듯하다.²⁾ 고리국왕의 侍婢가 하늘로부터 氣를 받고 아들을 낳아 동명이라 불렀으며, 동명은 말을 쳤고 활을 잘 쏘았는데 국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하였고, 시엄수에 이르러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강을 건너서 부여의 땅에 都邑했다는 사실 등이 동명형신화에 공통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동명형신화에서 가장 강조하려 한 것은 동명이 국왕의 박해를 받고는 도망하여 새로운 천지를 찾아가는 면이다. 이런 점은 그 이전의 단군신화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다. 단군신화에서 내세우려 했던 것은 桓因, 곧 天神의 아들인 桓雄과 地神인 熊女가 혼인하여 단군을 낳고, 그가 古朝鮮을 건국하여 백성들에게 여러가지 日常事의 일을 가르치고 있다. 곧 단군신화 속에는 天神과 선택된 地神의 결합으로 국가를 여는 選民意識이 강하게 노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명형신화에서는 그러한 선민의식을 들추어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왕의 시비가 하늘로부터 氣를 받는 모습으로 처리되었다. 단군신화에 비해 동명형신화

1) 《三國志》魏書 東夷傳 夫餘條에 “魏略曰 舊志又言 昔北方有橐離之國者 其王者侍婢有身 王欲殺之 婢云 有氣如鷄子 來下我故有身 後生子 王損之於淵中 豬以喙嚙之 徙之馬閑 馬以氣嚙之不死 王以爲天子也 乃令其母收畜之 名曰東明 常令牧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南至施掩水 以弓擊水 魚鼈浮爲橋東明得度 魚鼈乃解散 追兵不得渡 東明因都王夫餘之地”라 하였다

2) 《魏略》과 《후한서》의 부여조에 나온 동명형신화는 매우 비슷하다. 다만 《위략》에서는 橐離國이라 하였으나 《후한서》에서는 索離國으로 나와 있으며, 東明이 건너간 江을 《위략》에서는 施掩水라 하였으나 후한서에서는 掩遮水라고 하면서 <지금 고구려 내에 있는 蓋斯水일 것이다> 라고 註를 달고 있다. 《후한서》에서 동명형신화를 고구려와 연계시킨 점은 그것이 어느정도 윤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보면 《위략》의 기록은 부여조의 分註로 처리되어 있으나 《후한서》의 그것은 부여조의 本文 속에 나타나 있다. 아울러 《魏略》에서는 고리국왕의 侍婢가 임신한 사실에서부터 서술되어 있으나, 《후한서》에서는 색리국왕이 出行함으로써 그의 시비가 임신하게 됨을 합리적으로 서술하려 했다. 이런 면은 후한서에 비해 《위략》의 동명형신화가 보다 더 전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다만 기록된 시기로 살펴 본다면 《논형》의 동명형신화가 가장 빠를 수 있다. 《논형》에서는 동명형신화가 橐離國의 사실로 나타났으며, 동명이 掩遮水を 건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후한서》에 나타난 국명이나 지명과 다소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논형》의 기록은 이전에 있었던 동명형신화를 얻어 기록하면서,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명형신화의 원 모형은 《논형》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셈이다.

에서 선민의식은 무시된 듯한 느낌을 준다. 반면 동명이 새로운 천지를 찾아 떠나는 부분은 단군신화에 나타나지 않았던 면이다. 동명형신화에서 강조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웅전설적 성격이다. 동명형신화는 그 후의 중국 史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고구려와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梁書》高句麗條에서는 고구려의 祖先으로 橐離王子인 동명을 들었으며,³⁾ 《通典》에서는 橐離國을 바로 고구려라 하였다.⁴⁾

다만 《隋書》에서는 東明 대신 朱蒙이 등장하여 고구려를 건국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서》에 실린 동명형신화는 고구려 개국신화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 주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부여왕이 河伯女를 얻어 閉室에 두었다. 하백녀는 日光을 받아 큰 알을 낳았는데, 한 남자가 껍질을 깨고 나오므로 이름을 주몽이라 했다. 주몽은 부여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하였는데, 큰 강에 이르자 '나는 河伯의 外孫이요 해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어 건너갔다.⁵⁾

물론 여기서 제시한 고구려 개국신화의 틀은 앞에서 이미 들은 동명형신화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 굳이 차이를 인정한다면 海의 아들임을 내세우는 천신에 대한 신앙이 강하게 배여 있다. 고구려 왕실은 시조인 주몽이 天帝나 日神의 아들이며, 그의 어머니는 河伯의 딸임을 표방하고 있다.⁶⁾

고구려 개국신화는 《위서》나 《수서》에 나와 있는 주몽신화를 根幹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실제 《三國史記》나 《삼국유사》에는 매우 복잡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있다. 장황하지만 그것을 내용 별로 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解夫婁가 돌아가고 金蛙가 왕위를 계승했다. 마침 太伯山 남쪽의 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얻어 그 내력을 물었다. 그 여자는 본래 河伯의 딸로서 이름을 柳花라 하였다. 여러 아우들과 더불어 놀고 있을 때 자칭 天帝의 아들이라는 解慕漱

3) 《梁書》高句麗條에 “其先出自東明 本北夷橐離王之子”라 하였다.

4) 《通典》邊方門 東夷 夫餘條에 “又謂橐離國即高句麗”라 하였다.

5) 《隋書》高麗條에 “高麗之先 出自夫餘 夫餘王嘗得河伯女 因閉於室內 爲日光隨而照之 感而遂孕生一大卵 有一男子 破殼而出 名曰朱蒙 夫餘之臣 以朱蒙非人所生 咸請殺之 王不請 及壯因從獲所獲居多 又請殺之 其母以告朱蒙 朱蒙棄夫餘東南走 遇一大水 深不可越 朱蒙曰 我是河伯外孫日之子也 今有難而追兵具及 如何得度 於是魚鼈 積而成橋 朱蒙遂度 追騎不得濟而還 朱蒙建國自號高句麗”라 하였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魏書》의 기록이 보다 빠르지만, 《隋書》에 비해 《魏書》의 동명형신화가 더 번다해서 《수서》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렇지만 두 기록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6) 《廣開土王陵碑》(《朝鮮金石總覽》上, 1919, p.3)에 “惟昔始祖 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이라 하였다. 또 〈牟頭婁墓誌〉(許典植 編著, 《韓國金石全文》古代篇, 亞細亞文化社, 1984, p.12)에 “河伯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 元出北夫餘”라 하였다.

가 나타나 熊心山 밑의 鴨綠 강가의 집에서 서로 私通하게 되었다. 그는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부모가 그녀를 우발수로 귀향보냈다고 했다.

金蛙가 이상히 여겨 柳花를 방안에 가두어 두니 햇빛이 비치는 지라, 유화가 몸을 피하는 데로 따라와 비치곤 하였다. 그로 인해 태기가 있어 알을 하나 낳았다. 王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주니 모두 먹지 아니 하고, 또 길 가운데 버리니 소와 말이 피해 갔으며 들에다 버리니 새가 날개로 품어 주었다. 왕은 그 알을 깨어 보려고 했으나 부숴지지 않아 도로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 유화가 그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 아이가 알을 깨고 나왔다. 7세에 숙성한 모습이 남과 다르며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朱蒙이라 불렀다.

② 금와의 아들 帶素 형제들의 시기를 받은 주몽은 말기르는 일을 맡았는데, 駿馬는 사료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하였으며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것을 자기가 갖고 여원 준마를 주몽에게 주었다. 그 뒤 사냥할 적에 화살을 적게 받은 주몽이 잡은 짐승은 뜻 밖에 많았으므로 王子 및 諸臣이 모해하려 했다. 주몽의 어머니가 그것을 눈치채고는 멀리 가서 뜻을 펴게 했다.

③ 주몽은 드디어 烏伊·摩離·陝父 등 3인과 함께 길을 떠나 淹漚水에 이르러 강을 건너려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追擊兵에게 붙들릴까 염려되어 水神에게 아뢰기를 ‘나는 天帝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자, 물속의 고기와 자라가 수없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주몽이 강을 건너자 고기와 자라가 흩어지니 추격병이 건너지 못하였다.

주몽 일행이 毛屯谷에 이르러 麻衣를 입은 再思와 納衣를 입은 武骨, 水藻衣를 입은 默居를 만났다. 그들과 함께 卒本川에 이르러 도움을하였는데, 미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 우선 沸流水 위에 살며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高氏로 성을 삼았다.

④ 이때 주몽의 나이 22세였으며 漢 建昭 2년(B.C 18)이었다.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依據하는 자가 많았다. 왕은 인접한 靺鞨을 물리쳤으며, 비류수 가운데 채소 앞이 흘러내려 음을 보고 상류에 松讓國이 있음을 알았다. 송양왕이 來屬하기를 요구하자, 왕은 분개하여 더불어 재주를 시험하니 송양왕이 당해내지 못하였다(《三國史記》 권13, 高句麗 始祖 東明聖王 卽位年條).

고구려 개국신화는 《三國遺事》에도 실려 있으나 《三國史記》에 실린 내용에 비해 소략하다. 《三國史記》의 내용 중 阿蘭弗의 설화나 再思·武骨·默居를 거느리게 되는 과정이나 松讓王과의 분쟁에 관한 것이 《三國遺事》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고구려 개국신화는 朱蒙 始祖傳承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몽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다. 주몽 시조전승은 天神族과 地神族이 결합하여 일국의 지배자를 탄생시키는 城邑國家의 개국신화이며, 選民思想을 기반으로 한 단군신화와 동일한 구조를 지녔다.⁷⁾ 그런데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는 본래 성

읍국가의 개국신화와 같은 시조전승이 포함되어 있다.

부여의 舊都에 도읍한 解慕漱는 주몽신화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본래는 독립된 시조전승을 가졌을 법하다. 그런가 하면 부여의 개국신화로 자리한 금와 시조전승은 물론, 그 외 琉璃 시조전승과 백제 개국신화 역시, 고구려 개국신화와 연관하여 전개되었다. 유리 시조전승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처음 주몽이 부여에 있을 적에 禮氏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이를 갖게 했는데, 주몽이 떠나온 뒤에 낳게 되었다. 이 아이가 바로 琉璃이다. 어린 나이에 활로 새를 쏘다가 잘못 맞혀 물긴는 여인의 물동이를 깨뜨렸다. 여인은 아비없는 아이인 까닭에 버릇이 없다고 꾸지람을 했다. 이로 인해 유리는 어머니로부터 南方으로 떠나 王이 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울러 주몽이 떠날 때에 禮氏에게 ‘내가 일곱 모가 난 돌 위 소나무 아래 유물을 감추어 두었으니, 그대가 만약 남자를 낳거든 찾게 하라, 그것을 찾아내는 자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였다. 유리는 온 산을 헤메었으나 그 물건을 못 찾고 지쳐 돌아 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주춧돌 틈의 기둥밑에서 토막난 칼을 찾았다. 유리는 그 칼을 가지고 屋智·句鄒·都祖 등 3인과 더불어 떠나, 卒本에 이르러 父王에게 토막난 칼을 바쳤다(《三國史記》 권13, 高句麗 琉璃王 卽位年條).

유리 시조전승과 이어져 백제 개국신화가 전개되고 있다. 곧 주몽은 일본에서 부여왕의 第二女 혹은 越郡女와 결혼하여 溫祚와 沸流 형제를 두었는데, 북쪽에서 유리가 내려와 太子가 되자 두 형제는 남쪽으로 새로운 천지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烏干·馬黎 등 十臣과 백성이 뒤따랐다. 형인 비류는 彌鄒忽에 도읍하였고, 온조는 漢山の 負兒嶽에 도읍하였는데, 뒤에 미추홀을 병합하여 백제라 하였다.

물론 《三國史記》의 기록상으로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유리 시조전승이 긴밀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李奎報의 〈東明王篇〉에서는 유리 시조전승이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포용되어 있다. 곧 〈동명왕편〉에서는 주몽신화 속에 유리가 부여로부터 고구려로 오는 전승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⁸⁾ 고구려 개국신화에 대한 가장 내용이 풍부한 것은 역시 〈동명왕편〉이다.

《三國史記》와 비교하여 〈東明王篇〉에 실린 고구려 개국신화에서는 다소 첨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이 그런 것들이다.

① 漢 神爵 3년(B.C 59)에 解慕漱가 부여의 舊都에 내려와 놀았다. 그는 하늘에서

7) 拙稿, 〈壇君古記의 理解方向〉(《韓國學論叢》 5, 國民大, 1983) pp.16~18.

8) 李奎報, 〈東明王篇〉(《東國李相國全集》 권3)에서 주몽신화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주몽이 松讓을 항복시키고 난후의 기록은 부여로부터 유리가 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다만 《三國史記》 유리왕 卽位年條의 기록과 비교하여, 여기서는 유리의 활숨씨가 빼어난 것과 보다 더 神聖한 기질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五龍車를 타고 내려 오는데, 따르는 사람 100명은 모두 흰 고래를 탔다. 熊心山에 10여 일 머물다가 내려왔는데, 머리에는 烏鳥冠을 쓰고 허리에는 龍光劍을 찼다.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저물면 곧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에서 天王郎이라 일컬었다.

- ② 帶素 형제들에게 쫓겨 강을 건넌 주몽은 황급히 떠나오면서, 어머니가 싸준 五穀種子를 잊고 왔다. 주몽이 큰 나무 밑에서 쉬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神母께서 보리 종자를 보내신 것이리라’ 생각하고,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떨어뜨렸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종자를 얻고나서 물을 뱉으니, 비둘기가 소생하여 날아갔다.
- ③ 주몽이 나라를 세웠으나 沸流國王 松讓이 속국으로 삼으려 함으로, 두 나라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주몽이 큰 사슴(고라니)을 蟹原 위에 거꾸로 달아 매고 저주하기를 ‘하늘이 비류에 비를 내려 그 도성과 변방을 漂沒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사슴이 슬피 울어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니, 장마비가 이레를 퍼부어 송양의 도움을 물에 잠기게 하였다.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李奎報, 〈東明王篇〉 《東國李相國全集》 권3).

이 외에도 〈동명왕편〉에 실린 고구려 개국신화는 《三國史記》의 그것과 비교하여 훨씬 그 내용을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많다. 한 예를 든다면 解慕漱와 柳花 및 河伯과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다. 《三國史記》에서는 해모수가 단순히 유화를 私通하고는 가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백이 딸을 귀향보내는 것으로만 기술되어 있다. 그렇지만 〈동명왕편〉에서는 해모수가 말채찍으로 훌륭한 궁전을 지으면서 하백의 세 딸 중 유화를 붙잡는 일과, 하백이 해모수와 더불어 제주 경쟁을 벌였으나 미치지 못했으며, 만취한 해모수와 유화를 가족부대에 넣어 수레에 싣고 하늘로 보내려 했는데, 마침 술이 깬 해모수가 여자의 비녀로 가족을 뚫고 탈출하여 하늘로 가서 돌아오지 않은 내용 등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동명형신화는 《삼국지》나 《論衡》 등 중국 古書에 간략하게 나타나 있으며, 《三國史記》에서는 고구려 개국신화로 갖추어졌고, 〈동명왕편〉에서는 그것의 가장 풍부한 여러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고구려 개국신화는 주몽 시조전승을 근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웅전설적 성격을 가졌다. 때문에 그 속에 반영된 새로운 천지를 찾아 국가를 건설해 가는 과정은 실제로 고구려가 주위의 여러 성읍국가를 병합하거나 흡수 동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지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는 주몽 시조전승 외에, 解夫婁를 비롯하여 金蛙나 심지어 解慕漱까지도 본래는 독립된 시조전승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주몽이 南下할 때에 같이 갔거나 중도에서 맞이한 신하들도 독립된 시조전승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Ⅲ. 英雄傳承의 강조

동명형신화는 단군신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天神과 地神인 河伯神이 결합하여, 그 자손이 국가를 건설하는 이른바 選民思想을 근간으로 성립되었다. 그렇지만 동명형신화에서는 東明이 정치적 박해를 받아 새로운 천지를 찾아 떠나는 영웅전승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천지를 찾아 국가를 건설해 가는 과정이 바로 英雄傳說로 이어지는데, 동명형신화의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성립되는 개국신화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재구성되었다.

《삼국지》나 《논형》 등에 나타난 稟離國 또는 索離國과 연관된 동명형신화에서는 동명이 단순히 국왕의 박해를 받아 남쪽으로 도망하고, 施掩水를 건너서 부여 땅에 도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곧 그것은 부여국의 개국신화이었거나⁹⁾ 아니면 부여족에 속한 어느 성읍국가의 개국신화였을 것이다. 고구려 개국신화에서 주몽이 대소형제들에게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전형적인 동명형신화의 내용이지만, 烏伊·摩離·陝父 등 3인과 더불어 길을 떠난 사실과 南下하는 과정에서 再思 등 여러 사람을 만나 동행하는 사실을 더 자세하게 부기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유리 시조전승이나 백제 개국신화 중 온조 시조전승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대체로 시조전승은 토tem적 사고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 ‘해의 아들’이란 표현 자체가 해를 토tem으로 설정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토tem적 祖先은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타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영웅전승이 성립되었다. 곧 위대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 영웅적인 행적을 통해 국가를 건설하면서, 한 부족이나 민족의 시조로 자리하게 되었다.¹⁰⁾ 그러한 영웅적 祖先은 보통 최후에 억울하거나 비참한 죽음을 당함으로써, 영웅전설로 성립되는 극적인 모티브를 가졌다고 한다.¹¹⁾

9) 《三國志》에서는 稟離國 侍婢의 설화를 夫餘條의 끝에 註로 실고 있다. 이 점은 그것이 부여국의 시조전승과 관계됨을 시사해 준다. 또한 본래 東明은 부여국의 시조로, 주몽은 고구려의 시조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한 것으로 다음 논문이 참고된다.

鄭璟喜, 〈東明型說話와 古代社會—宗教·社會史的 觀點으로부터의 接近—〉(《歷史學報》98, 1983) pp. 2~3.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歷史學研究》10, 全南大, 1981), p. 40.

10) E·E·Evans-pritchard, 《The theories of primitive religion》(拙譯, 《原始宗教論》, 探求堂, 1976, p. 67).

11) 이런 모습은 英雄敍事詩에 나타나 있는데, 주몽이 그러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靑銅器시대에서 鐵器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국가를 건설하면서, 주위의 다른 성읍국가를 병합해 가는 시조전승으로 구성된 개국신화를 영웅전설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즐고, 〈新羅 昔脫解神話의 成立基盤—英雄傳說的 성격을 중심으로—〉(《韓國學論叢》8, 1986, p. 6의 註 1)에서 정의한 바 있다.

동명형신화 내지 고구려 개국신화에서 동명이나 주몽은 비극적인 삶을 영위한 것은 아니지만, 출중했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거나 박해를 받았다. 동명형신화에서는 卵生설화를 공통으로 가졌다. 동명이나 주몽은 알의 모습으로 출생하였다. 그런데 같은 난생설화이면서도 신라의 朴赫居世나 金闕智신화에서와는 달리, 동명형신화에서는 알로 태어나 상서롭지 못하므로 인해 버림을 받고 있다. 고리국의 侍婢나 유화가 낳은 알은 돼지우리에 버려지거나 마굿간에 내팽개쳤지만, 소나 돼지가 입김을 불어 그것을 보호하였는가 하면, 들에 버려지자 새들이 또한 그것을 보호하였다.

대개 난생으로 출생한 위대한 인물은 그 상서롭지 못한 神異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선택된 神人の 성격을 갖지만, 한편 그러한 선민의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천지를 찾아 떠나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석탈해가 多婆那國에서 알로 태어났지만, 바다에 띄어버린 신세가 된 것도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바다 중에서 童子로 깨어난 탈해는 武士團을 이끌고 신라 동해안 쪽으로 이동해 오는 것으로 이해된다.¹²⁾

우리 시조전승은 난생설화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웅전설적 성격을 가졌다. 우리는 고구려로 떠나기 전 부여에 있을 때에, 활로써 동네 아주머니의 물동이를 깨뜨리자, 아버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버릇이 없다는 욕설을 듣고 있다.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욕설을 듣는 우리의 모습은 난생으로 버림을 받는 영웅전설적 성격의 시조전승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듯 동명형신화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성격은 선민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영웅전설적 성격의 개국신화를 성립시킨 데에서 찾아질 수 있다.

동명형신화는 부여 개국신화인 고리국의 시조전승과 고구려 개국신화인 주몽 시조전승으로 크게 가를 수 있는데, 그것의 공통적인 특성은 영웅전설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두 시조전승 사이에 차이를 설정할 수 있다. 두 개국신화를 비교하면 다음 <표 1> 과 같다.

12) 이와 관련하여 신라 개국신화 중에 脫解神話가 영웅전설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참고, <新羅 昔脫解神話의 成立基盤>, pp. 11~16). 卵生으로 출현한 인물 중 朴赫居世나 金闕智, 六加耶의 시조 등은 선민사상을 강하게 지닌 성읍국가의 시조전승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비해 영웅전설적 성격을 지닌 개국신화의 경우, 卵生으로 인한 출생에서부터 이미 버림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1〉 동명형 개국신화

	夫餘(稟離國)	高句麗
主人公	東明	朱蒙
父	氣如鷄子	解慕漱
母	왕의 侍婢	柳花(河伯女)
出生	卵生	卵生
母的 對偶婚	분명하지 않으나 氣와 王으로 생각됨	두 남편이 분명히 나타남
활동 능력	활을 잘 쏘고 말을 기름	활을 잘 쏘고 말을 기름
이동경로	왕의 시기를 받아 남쪽으로 도망, 施掩水를 건넌, 고기·자라의 도움	대소의 시기를 받아 南下, 시엄수를 건넌, 고기와 자라의 도움
南下하는 무리	나타나지 않음	분명함
併呑 기사	없음	있음

우선 동명 시조전승도 천신과 지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신화구성의 가장 기본단위를 갖춘 것 같지만, 그것이 주몽 시조전승에서 보다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주몽의 부친은 天帝의 아들이며 모친은 하백의 딸이었음에 대해, 동명의 부친은 계란 정도의 氣였고 모친은 왕의 시비로 표현되어 地母神的 성격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가 하면 주몽의 어머니 유화는 金蛙와 해모수의 두 남편을 가졌음에 대해, 동명의 모친인 시비의 경우 氣와 王이라는 두 남편을 설정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남편이 둘 이상되는 대우혼의 풍속은 초기 농경사회의 산물이다.¹³⁾ 또한 주몽 시조전승보다 동명 시조전승이 더 오래되어 本源의임을 생각해 볼 때, 적어도 동명 시조전승은 초기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주몽 시조전승은 이보다 후대에 성립되었을 법하다. 그리고 보면 동명 시조전승과는 달리 주몽은 금와왕의 아들인 帶素 형제의 박해를 받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烏伊나 陝父 등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 아마 이들은 주몽이 남하할 때에 거느리고 내려온 여러 부족집단의 우두머리였을 법하다. 곧 주몽은 烏伊나 摩離, 陝父 등이 각각 이끄는 여러 부족집단을 거느리고 시엄수를 건너 졸본지역으로 내려왔다.

13) 拙稿, 〈檀君古記의 理解方向〉(《韓國學論叢》5, 1983) p. 21.

주몽이 거느린 무리는 武士團이었음이 분명하다. 무사단을 거느리고 있어서 인지 주몽 시조전승에서는 松讓國을 정벌하는 기사가 나타나 있지만, 동명 시조전승에서는 무사단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정복기사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동명형신화가 영웅전설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 시조전승에서도 새로운 천지를 찾아 국가를 건설하는 면이 부각되어져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동명이 이끄는 무사단이나 선주세력을 정복하는 면을 설정할 수 있을 법하다. 그렇지만 그런 면은 주몽 시조전승에는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동명 시조전승에서는 약하게 나타났거나 분명하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

동명 시조전승에 비해 주몽 시조전승은 바로 이러한 무사단이나 先住세력의 합병 기사를 분명하게 갖추고 있다. 그리하여 주몽 시조전승을 중심으로 하여 고구려 개국신화가 구성되었다. 동명 시조전승과 비교하여 고구려 개국신화는 보다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주몽 시조전승 외에 金蛙나 琉璃·溫祚 시조전승을 복합적으로 연계시킨 것이다.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나와 있는 주몽 시조전승 외의 여러 시조전승은 주몽신화가 무사단을 이끌며 선주세력을 병합해 간 사실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하는데, 바로 이 점은 동명 시조전승과 크게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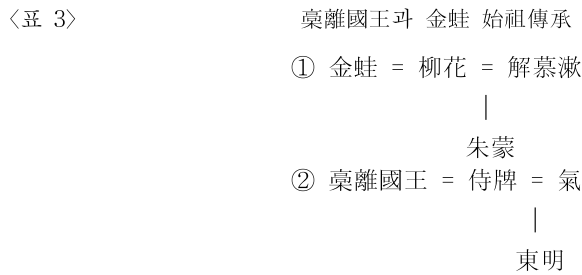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나타난 각각의 시조전승의 성격을 비교하게 되면 동명형신화의 영웅전설적 성격이 갖추어지는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표 2> 를 참고하기로 하자.

우선 금와 시조전승은 주몽이나 유리·온조 시조전승과 분명히 구별된다. 후자의 세 시조전승이 모두 영웅전설적 성격을 갖추고 있지만 금와 시조전승은 그것을 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금와왕의 養父는 解夫婁지만 실제로 그는 해부루가 산천에 제사하여 얻게 되었으며 큰 돌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금와 시조전승은 地神族 신앙체계를 중시하여 구성된 것이며, 주몽 시조전승에서와 같은 천신신앙이 보이지 않는다.

<표 2> 高句麗 開國神話 속의 여러 始祖傳承

	金蛙	朱蒙	琉璃	溫祚
父	養父 解夫婁	解慕漱	朱蒙	朱蒙
母	돌(石)	柳花	禮氏	夫餘王女(越郡女)
토템적 요소	나타남	없음	없음	없음
이동하는 무리	없음	있음	있음	있음
활동능력	기록이 없음	활을 잘 쏘 말을 기름	활을 잘 쏘	기록이 없음
합併기사	없음	있음	없음	있음
夫人	(柳花)	禮氏·夫餘王女	松讓女	분명하지 않음

금와 시조전승이 지신신앙을 보다 강하게 포용하고 있는 점은 금와집단이 유이민 세력이었다기 보다는 선주한 토착세력으로 이해하게 한다. 해모수 곧 주몽집단은 유이민세력이지만, 地神族신앙을 표방한 柳花집단 역시 토착부족 세력이다. 그런데 金蛙는 東明 시조전승 속에 언급된 고리국왕과 비슷한 면을 지녔다. 신화구성면에서 금와와 고리국왕은 일치하고 있다. 다음 <표 3> 이 이를 알려 준다.



물론 고리국왕과 금와 시조전승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는 해모수 및 금와와 對偶婚을 행하였지만, 동명의 어머니인 시비의 대우혼은 약하게 나타나 있다. 그 외에 두 시조전승은 비슷하다. 특히 주몽이나 금와 또는 동명이나 고리국왕이 그 어머니의 대우혼으로 연결되고 있음이 흥미롭다. 이런 점은 고리국왕도 금와와 마찬가지로 선주한 토착 세력집단을 이루었을 것이며, 새로 流移하여 들어온 朱蒙집단 또는 동명집단은 그들을 동화하거나 흡수하면서 등장하였을 것이다.¹⁴⁾

주몽이 금와왕의 왕자인 帶素형제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남하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금와 시조전승은 주몽 시조전승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모르긴하되 金蛙집단과 朱蒙집단은 한 때 정치적인 聯盟관계에 있었을 지라도, 그 결속이 미약하여 언제든지 서로 이반할 수 있었다. 주몽 시조전승과 얽히면서 다시 독립된 시조전승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琉璃와 濫祚 시조전승이다. 이 세 시조전승은 영웅전설적 성격을 갖는 면에서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 주몽과 유리는 모두 武士的 소양을 갖춘 것으로 지적되었다.¹⁵⁾ 그들은 神技的인 善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된 모습을 보여준다.

주몽과 유리가 무리를 이끌고 남하하는 모습은 비슷하다. 유리와 같이 卒本으로 내려가는 屋智·句鄒·都祖 등도 무사단을 이끄는 部族長이었을 법하다.¹⁶⁾ 특히 이들이

14) 拙稿, 〈檀君古記의 理解方向〉 pp. 23~25.
 15) 위의 논문, p. 23.
 16) 金龍善, 〈高句麗 琉璃王考〉(《歷史學報》87, 1980) p. 51.

무사단적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은 유리가 부러진 칼의 한 짝을 가지고 졸본으로 떠나는 데에서 유추될 수 있다. 영웅적 성격을 드러내는 바로 이 점이 동명형신화의 가장 핵심에 해당될 수 있는데, 주몽 시조전승과 유리 시조전승은 바로 이 부분에서 차별을 설정할 수 있다.

주몽과 유리가 다 같이 무사단을 이끌고 남하해 갔는데 주몽 시조전승 내에는 정복기사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유리 시조전승 내에는 그런 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유리는 주몽이 이루어 놓은 기반을 그대로 순조롭게 물려 받고 있다. 그러므로 유리는 선택된 인물이라는 느낌을 준다. 유리 시조전승 속에는 選民 신앙이 내재해 있다. 반면 주몽이 南下하는 도중 再思·武骨·默居 등과 합류하는 모습은 정복기사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그 보다 더 분명한 기록은 松讓國에 대한 정복기사이다.

주몽이 송양국을 합병하는 기사는 《삼국사기》의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주몽이 송양왕과 더불어 재주내기하여 승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으며, 비교적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동명왕편〉에는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다. 곧 朱蒙은 沸流國王 松讓과 다투어 싸우자, 사슴을 거꾸로 매달고 슬피우는 그 울음에 기도를 실어, 하늘이 비류국에 비를 내리게 하였다. 며칠 내린 장대같은 비는 비류국의 도성을 漂沒시킴으로써, 고구려는 송양국을 합병하였다. 고구려 개국신화 중 〈동명왕편〉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되어 기술되었다. 그것은 어쩌면 바로 이러한 정복과정에 대한 기술이 고구려 개국신화 중 주몽 시조전승의 특성으로 생각될 수 있게 한다.

주몽이 송양국을 합병한 기사의 사실여부는 뒤에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다만 琉璃 시조전승이 무사단을 이끌고 이동해 오지만 선민신앙에 머무는 모습을 갖추는 것과 비교하여, 주몽 시조전승은 과감한 정복기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점은 비록 주몽 시조전승과 유리 시조전승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성립되어 서로 연관을 갖고 있었을 지라도, 주몽 시조전승의 영웅전설적 성격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것은 유리 시조전승이 정착되는 시기보다 훨씬 후대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朱蒙 시조전승과 유리 및 온조 시조전승은 엄밀히 말해 주몽과 유리의 어머니인 禮氏 및 온조의 어머니인 夫餘王女가 부부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씨는 주몽이 떠나가고 난 후 北扶餘에서 아들인 琉璃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 점은 초기 농경사회에 모권 중심으로 정착되는 대우혼의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 그것에 비해 주몽은 禮氏 부인 외에 부여왕녀와 결혼하였다. 그것은 家父長的인 一夫多妻制의 모습을 보여 준다. 가부장적인 혼인관계를 성립시킨 주몽 시조전승은 분명히 對偶婚的 유제를 보여주는 유리 시조전승보다 후대에 성립되었음이 분명하다.

고구려 개국신화 중 유리 시조전승과 온조 시조전승은 신화의 내용상으로는 비슷하게 정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온조 시조전승 내에는 온조가 彌鄒忽을

합병하는 등 정복기사를 담고 있다. 또한 琉璃에게 太子位를 양보한 온조는 母親을 모시고 南下하고 있다. 이 점 역시 대우혼적 사고에서 벗어났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온조 시조전승은 유리 시조전승보다 훨씬 후대에 정립되었음이 분명하다.

신라 개국신화와와의 차이를 뚜렷하게 부각할 때에 고구려 개국신화가 갖는 특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두 개국신화를 대비하면 다음 <표 4>가 된다.

<표 4> 고구려와 新羅의 開國神話

	고 구 려	신 라	비고(檀君神話)
주인공	朱蒙	朴赫居世	檀君
부모	天神 + 地神(河伯)	분명하지 않음	天神 + 地神
부인	禮氏·夫餘王女(西召奴)	閼英	熊女
혼인	母의 對偶婚과 朱蒙의 一夫多妻制가 並存	一夫一妻	母의 대우혼이 미약하게 존재
Totem적 요소	개구리=人名	馬·鶴 ≠ 人·人名	熊 = 人
지모신앙	柳花 = 神母 농업신적 성격	강함 閼英=仙桃聖母	약함
무사단	있음	脫解神話에 나타남	없음
이동경로	南下(분명함)	脫解만 나타남(海路)	없음
신앙 및 사상	英雄傳說的 성격	神聖族信仰	選民信仰

檀君신화와 고구려 개국신화와의 차이는 이미 살핀 바 있다. 단군신화가 新石器시대 이래의 血緣共同體의 성격이 강한 토템신앙을 뚜렷하게 포용하고 있는 반면, 고구려 개국신화에서는 토템신앙이 약해지면서 모계제적 대우혼이나 무사단을 이끄는 영웅전설적 성격 또는 地母의 농업신적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¹⁷⁾ 단군신화가 청동기시대를 배경으로 성립된 개국신화라면 주몽신화는 철기시대를 배경으로 성립된 개국신화였다.

토템적 신앙의 요소는 고구려 개국신화에서 보다는 신라 개국신화에서 더 약하게 나타나 있다. 고구려 개국신화의 경우 개구리는 金蛙王의 이름이지만, 신라 개국신화의 경우 朴赫居世와 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곧 말이 울고 하늘로 올라가고 난 자리 옆에서 朴赫居世가 태어나 있었다. 마찬가지로 金閼智와 닭과의 사이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결여되어 있다. 이 점은 신석기시대 이래 혈연공동체 의식은 단군

17) 拙稿, <檀君古記의 理解方向> pp.22~23.

신화에는 강하게 배여 있었으나 고구려 개국신화에서는 약하게 나타났고, 신라 개국신화에서는 어느정도 그것이 청산되어 갔음을 시사해 준다.

박혁거세의 부모는 분명하지 않다.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移住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추측하기 어렵다. 신라의 朴氏族은 流移해 왔을지라도 先住한 세력과 더불어 동화되어 토착적 성격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박혁거세는 關英을 부인으로 맞는 외에 달리 혼인관계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고구려 개국신화에서는 柳花의 母系的 대우혼과 아울러 주몽 자신은 父系的 一夫多妻婚을 행하고 있다. 어쩌면 고구려 개국신화의 혼인관계 기사는 모계적 유습과 부계적 多妻婚이 엉겨주춤한 모습으로 얽혀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신라 박혁거세와 알영은 의도적인 一夫一妻制의 혼인으로 정착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한 추측은 알영이 神母로 해석될 소지를 갖기 때문이다.¹⁸⁾ 본래 仙桃山 神母는 중국 帝室의 딸로 알려져 있는데, 신라로 와서 聖母로 추앙받았으며 아들을 낳아 그가 海東의 始祖가 되었다(《三國遺事》 권5, 仙桃聖母隨喜佛事條). 地母는 박혁거세의 어머니로도 신앙된 존재였지만, 후대에 그의 부인으로 정착되었다. 그렇다면 고구려 개국신화보다는 신라 개국신화가 훨씬 人爲的인 의도에서 정교하게 짜여진 느낌을 준다.

고구려 개국신화는 물론 신라 개국신화에서도 지모신의 성격은 강하게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두 개국신화 속의 地母神이 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고구려 개국신화 속의 지모는 농업신적 성격을 강하게 지녔다. 주몽이 帶素의 형제들에게 쫓겨 황금곶에 보리종자를 잇고 떠났지만, 신모는 비둘기를 통해 그것을 주몽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신라 개국신화 속의 神母는 佛事に 크게 施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⁹⁾ 이런 점도 역시 신라 개국신화에 비하여 고구려 개국신화가 보다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개국신화는 주몽 시조전승을 중심으로 하여 금와나 유리·온조 시조전승을 포함하면서 성립되었으나, 그 각 시조전승은 뒷날 모두 고구려 개국신화와의 연관을 계속해서 고수하지 않았다. 우선 금와 시조전승은 부여국의 신화로 분류되어야 했으며, 온조 시조전승은 백제 개국신화를 성립시켰다. 이런 면은 비슷한 모습으로 얽힌 신라 개국신화의 모습과 차이를 이룬다. 신라 개국신화는 박혁거세와 알영을 중심으로

18) 關英은 神母的 존재로 연구되었거니와(三品彰英, 〈新羅の古代祭政〉《古代祭政と穀靈 信仰》, 平凡社, 1973, pp. 352~354) 알영과 깊은 연관을 갖는 仙桃山 聖母는 바로 地母神的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19) 《三國遺事》 권5, 仙桃聖母隨喜佛事條에는 선도산의 신모가 比丘尼 智惠를 도와 安興寺의 佛殿을 새로 꾸미는데, 황금 160 兩을 내어 돕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이 기록이 신라 개국신화 속에 포함되어 전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신라 개국신화 속에 地母神신앙이 존재했으며, 그것은 본래 關英에게도 나타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 신라 개국신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모신신앙은 仙桃聖母에게로 오로지 전해졌을 법하다. 따라서 선도산 신모신앙으로서 신라 개국신화 속의 지모신앙을 유추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로 성립되었지만, 昔脫解나 關智신화를 포함하고 있다. 탈해나 알지 신화는 뒤에 비록 독립된 신화체계를 성립시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라국의 신화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고구려나 신라 개국신화 속에 포함된 여러 시조전승이 본래 소속된 고구려나 신라 국가와의 연관에서 벗어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신화의 영웅전설적 성격을 갖추는 것과 표리관계에 있다. 신라 개국신화의 경우 처음에는 박혁거세 시조전승 속에도 영웅전설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뒤에 그것이 정착되면서 영웅전설적 성격은 탈해신화 속에 모아져 나타나게 되었다.²⁰⁾ 그러나 고구려 개국신화 속의 流移民의 성향을 갖는 시조전승은 모두 영웅전설적 성격을 가졌다. 주몽 시조전승은 물론 유리와 온조 시조전승은 무사단을 거느리면서 南下해 갔다. 그 중 온조 시조전승이 영웅전설적 성격을 갖는 것은 백제국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의당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온조 시조전승은 고구려 개국신화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유리 시조전승은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주몽 시조전승처럼 영웅전설적 성격을 가졌다. 본래 개국신화 속에 포함된 여러 시조전승은 聯盟王國의 존재를 생각하게 한다.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포함된 온조 시조전승은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포함된 어느 城邑國家의 시조전승으로 생각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리 시조전승 역시 같이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온조 시조전승이 고구려 개국신화 체계에서 쉽게 벗어나 백제 개국신화로 성립된 것은 연맹왕국 내에 고구려 왕실과 온조 시조전승을 가졌던 성읍국가와의 결속이 공고하지 못했음을 알려준다.

유리 시조전승의 성립은 역시 고구려 연맹왕국 내에서 주몽 시조전승을 대신한 지배세력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준다.²¹⁾ 고구려 연맹왕국 내에서 일어난 지배세력의 교체는 왕실과 연맹권 속에 포함된 성읍국가의 지배자들이 공고하게 결속되어 있었다기 보다는, 서로 거의 독립적인 세력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고구려 개국신화의 영웅전설적 성격이나 또는 그 속에 포함된 여러 시조전승이 각각 영웅전설적 성격을 갖는 것은 고구려 왕실이 이웃 성읍국가를 정복하면서 연맹왕국을 성립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고구려 연맹왕국의 왕권이 확고하게 세워진 것이 아님을 나타내준다.

초기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포함된 여러 성읍국가들은 거의 독립적 세력권을 가졌는데 형세가 달라지면 또한 고구려 연맹왕국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이에 비해 신라 개국신화는 신라 연맹왕국 속에 포함된 성읍국가의 지배자들이 왕실에 의해 확실하게 장악되었음을 알려준다. 그것이 이른바 신라 개국신화 속에 나타난 神聖族신앙이다.²²⁾ 신성족신앙을 표방한 金氏族은 신라 연맹왕국 속에서 영도세력으로 확고한

20) 拙稿, 〈신라 석탈해신화의 성립기반〉 pp. 14~16.

21) 金龍善, 〈高句麗 琉璃王考〉 pp. 54~56.

지위를 성립시켰다.

IV. 太祖王系 征服王朝의 등장

고구려는 일찍부터 연맹왕국을 이루었는데, 특히 중국민족과 대항하면서 정복국가 체제를 갖추어 갔다. 고구려 개국신화와 연관되어 있는 松讓國의 정복기사는 초기 고구려국가의 성격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고구려는 산악지역에 의거했기 때문에 주위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옥한 평야지대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 자연 고구려 국가에서는 전쟁이 생업수단의 일부가 되었고, 정복된 지역의 인민이나 전리품의 획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다만 고구려 초기에 연맹왕국이 정립되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복속되어 들어온 국가들도 정복기사로 기록되어 졌다. 아마 그들은 고구려 연맹왕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독자적인 시조전승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음 기록에서 이러한 형세를 짐작할 수 있다.

가을 7월에 夫餘王의 從弟가 나라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 先王이 몸을 망치고 나라를 없애어 백성이 의지할 곳이 없고, 왕의 아우는 도망하여 曷思에 도움을 정하였으며, 내 역시 不肖하여 부흥시킬 수 없다’고 하고 드디어 萬餘 명과 함께 와서 항복하였다. 大武神王은 그를 봉하여 왕을 삼아 椽那部에 안치하고 그의 등에 絡文이 있음으로 絡氏의 성을 주었다(《삼국사기》 권14, 大武神王 5년 7월條).

대무신왕이 부여를 공격하여 국왕인 帶素를 죽이자 부여는 두 나라로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그 중 대소의 막내 동생이 따로 曷思國을 세웠는가 하면, 從弟가 다스리던 부여국은 고구려에 항복하여 왔다. 대소의 종제가 다스렸던 부여는 萬餘 명의 백성을 거느린 비교적 큰 국가였는데,²³⁾ 투항해 오자 고구려는 그에게 椽那部の 왕을 삼아 絡氏姓을 내렸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투항해 온 성읍국가나 부족세력의 長에게 姓을 내리면서 왕으로 삼고있는 점이다.²⁴⁾ 초기 고구려는 투항해 오는

22) 拙稿, 〈新羅建國神話의 神聖族 觀念〉(《韓國學論叢》 11, 1989) pp. 33~38.
23) 帶素의 從弟가 거느린 만여 명은 그가 대단히 큰 국가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三韓의 경우 6~7백 家가 一國을 이루었으며, 만여 家는 大國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만여 명은 큰 국가를 이루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고구려 초기의 총 인구가 三萬戶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때 투항한 만여 명을 거느린 국가는 성읍국가에서 주위의 小國을 흡수한 小聯盟國으로 성장하였던 정치세력이었음이 분명하다.
24) 李鍾旭,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歷史學報》 94·95 合, 1982) p. 96에서는 那가 獨立小國으로 이해되었다.

세력의 장에게 흔히 성씨를 내리고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再思에게 克氏를, 武骨에게 仲室氏, 默居에게 少室氏를 내렸으며, 대무신왕 때에는 솔을 짊어지고 從事한 남자에게 負鼎氏를 내렸다. 이외에도 고구려 초기에 왕실이 내린 성씨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몇개가 더 찾아진다.

① 箕山の 들에서 異人을 얻었는데, 양 거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있었다. 그를 조정 에 등용해 羽氏 姓을 주고 王女에게 장가들게 하였다(《삼국사기》 권13, 琉璃王 24년條).

② 왕이 國內城 부근의 地勢를 살피고 돌아오는 길에 沙勿澤에 당도하니, 한 장부가 왕의 신하가 되기를 청함에, 왕은 기뻐하며 허락하고 沙勿이라는 이름과 位氏성을 내렸다(위의 책 권13, 琉璃王 21년 9월條).

③ 대신인 仇都·逸苟·焚求 등의 3인을 내쫓아 서민으로 만들었다. 세 사람은 沸流部の 長이었는데, 본래 탐심이 많고 野鄙하여 남의 妻妾이나 牛馬·財貨를 마구 빼앗아 자기의 욕망을 채웠다. 왕이 듣고 東明王의 舊臣이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내쫓았다. 그리고 南部使者 鄒敦素로 沸流部の 長을 삼았다. 부임한 추발소는 지혜로써 세 사람을 누우치게 하여 서로 벗이 되니, 왕은 ‘발소가 위엄을 이용하지 않고, 능히 지혜로서 악을 징계하니 能吏라 하겠다’고 하고는 大室氏라는 성을 내렸다(위의 책 권14, 大武神王 15년 春 3월條).

再思나 武骨, 默居는 朱蒙이 南下할 당시에 흡수된 성읍국가나 부족세력의 지배자였음은 이미 지적하였지만, 이들처럼 성이 내려지는 箕山の 異人이나 國內城의 沙勿澤 근방에 거주했던 位沙勿, 또는 南部의 使者인 추발소 역시 성읍국가 내지 부족세력을 이루고는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흡수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羽氏部族은 원래 箕山の 들 부근에 성읍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정치세력이었으며, 그러한 부족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箕山の 異人은 王女와 혼인하였다. 위사물 역시 국내성 부근에 성읍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부족세력 기반을 갖고 있었다. 추발소가 大室氏로 姓을 받는 과정은 조금 특이하게 나타나 있다. 沸流部の 長은 仇都나 逸苟·焚求 등이었는데, 왕실은 이들을 몰아내고는 南部의 使者인 추발소를 임명하였다. 추발소는 남부의 사자라고는 하지만, 아마 남부의 지배자였을 법하다.²⁵⁾ 그가 비류부의 장으로 임명되고 있다.

鄒敦素는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흡수되어 남부로 개칭되었지만, 본래는 거기에서

25) 金光洙, 〈高句麗 前半期の ‘加’ 階級〉(《建大史學》 6, 1982) pp.11~12에서 고구려의 部는 영역의 확대과정에서 투항하여 오는 세력을 흡수 편제한 다소간에 변질된 統治區域化 한 것이며, 五部는 五那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투항하여 오는 전 지배세력을 거국적으로 편제한 것이라 하였다. 그럴경우 소연맹국과 같은 大國이 고구려 연맹 속에 흡수되었을 때와는 달리, 小國이 흡수되었을 경우 그 지배자는 ‘加’가 아니라 大使에 임명되었을 수도 있다.

성읍국가와 같은 정치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왕실은 남부의 지배자인 추발소로 하여금 연맹왕국 내의 다른 독자세력 기반을 갖고 있었던 비류부를 장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왕실이 지방의 독자세력을 점차로 장악해 가는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확실한 모습은 太祖王代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기록을 참고하기로 하자.

① 貫那部の 沛者인 達賈를 보내어 藻那를 정벌하고는 그 王을 사로 잡았다(《三國史記》 권15, 太祖王 20년 春 2월條).

② 왕은 桓那部の 沛者인 薛儒를 보내어 朱那를 정벌하고, 그 王子인 乙音を 사로 잡아 古鄒로 삼았다(위의 책 권15, 태조왕 22년 冬 10월條).

태조왕이 貫那部 沛者인 達賈로 하여금 藻那를 정벌하고 그 왕을 사로잡거나 또는 桓那 패자인 薛儒로 하여금 朱那를 정벌하고는 그 왕자 乙音を 사로잡아 古鄒加로 삼고 있다. 이것은 외형상 大武神王 때에 추발소를 비류부의 장으로 앉히는 기사와 비슷할 수 있다. 주나나 조나의 왕을 고구려 연맹왕국의 지배세력으로 흡수하고 있는 점²⁶⁾도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추발소가 전임 비류부의 長과 벗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仇都 등의 3인이 여전히 고구려의 지배세력으로 남아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두 기사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류부의 장으로 남부의 사자인 추발소가 임명되었지만, 태조왕대가 되면 주나나 조나의 장으로 薛儒와 達賈가 임명된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 점은 太祖王代와 그 이전 代에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흡수되어 들어오는 성읍국가나 부족세력의 존재양상을 크게 달리하게 만들었을 법하다. 태조왕대 이전에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흡수되어 들어온 부족세력은 거의 독립적인 형세를 유지하였는 듯하다.²⁷⁾ 아마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제사를 담당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상당한 독자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흡수되어 연나부에 거주하고 있었던 帶素王의 從弟도 왕을 칭하고 있었다. 또한 태조왕대에 토벌되는 朱那나 藻那는 일단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흡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립된 국호를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 지배자는 왕으로 칭해졌다. 琉璃王은 烏伊·摩離 등으로 하여금 梁貊國을 정벌하게 하였으며 大武神王도 蓋馬國·句茶國 등을 정벌하였다.

양맥국이나 개마국, 구다국 등이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흡수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26) 물론 朱那의 王子 乙音を 古鄒加로 임명하였으나, 藻那의 경우 王을 사로잡았다는 것 외의 다른 언급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나와 조나가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흡수되는 형식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 있는 점으로 미루어, 조나의 왕도 고구려의 귀족으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27) 李鍾旭,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歷史學報》94·95 합, 1982) pp. 95~99.

다음 기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夏四月에 夫餘王 帶素의 아우가 曷思水 가에 와서 나라를 건설하고 왕이 되었다. 그는 부여왕 金蛙의 막내 아들인데 史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았다. 當初에 대소가 피살당할 때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알고 종자 백여 명과 더불어 鴨綠谷에 이르렀다. 마침 海頭國王이 나와 사냥하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고, 그 백성을 취하여 이곳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니 이가 曷思王이다 (《삼국사기》 권14, 大武神王 5년 4월條).

부여의 대소왕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피살당하자 그 동생이 무리를 이끌고 鴨綠谷에 이르러 海頭國을 흡수하고는 曷思國을 건설하였다. 이처럼 갈사국은 그 이전의 해두국을 흡수하여 성립된 것이다.

蓋馬國 등 고구려 국가에 정복되어 들어온 국가의 모습은 갈사국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유추될 수 있을 법하다.²⁸⁾ 또한 이미 지적했듯이 고구려 왕실로부터 姓氏를 하사 받은 세력도 같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런 성읍국가나 부족세력 중에 어떤 것은 거의 독립된 상황을 유지할 수도 있었으나, 개중에도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해체당하고 고구려 연맹왕실 속에 완전히 흡수되어 가는 과정을 밟고 있기도 했다. 초기 고구려 연맹왕국이 형성될 당시에 고구려왕실과 聯盟圈 속에 흡수되어 들어온 성읍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黃龍國의 존재로써 이해할 수 있을 법하다.

琉璃王 27년에 태자 解明이 용맹함을 듣고는 黃龍國王이 强弓을 바치니, 해명이 이를 당기어 꺾어 버림으로써 황룡국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유리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황룡국왕에게 효도를 모르는 자식인 해명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였다. 황룡국왕이 해명을 자기 나라로 불렀으나 죽이지 않고 돌려 보냈다. 유리왕이 해명에게 자결케 하니, 해명은 ‘황룡국왕의 활을 꺾은 것은 그가 우리 나라를 경홀히 여길까 하여 일부러 그런 것인데, 이로 인해 父王으로부터 불효로 여겨져 자결케 하니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죽었다(《三國史記》 권13, 유리왕 27년 및 28년條).

黃龍國은 고구려 연맹圈 속에 들어와 있었던 국가였을 법하다.²⁹⁾ 황룡국왕이 解明

28) 물론 이때의 海頭國王은 죽임을 당하였고, 曷思國은 海頭國의 백성과 都邑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갈사국과 해두국의 관계는 小聯盟國으로서 연맹체가 커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29) 물론 黃龍國도 초기 고구려 연맹왕국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국가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松讓國의 존재 이상으로 고구려와 독립되어 존재한 것 같지 않다. 송양국도 고구려 연맹왕국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었지만, 결국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흡수되었다. 황룡국도 송양국과 비슷한 모습으로 고구려 연맹 속에 흡수되어 있었을 법하다.

에게 강궁을 선물한 것이나 고구려왕이 해명을 죽이도록 황룡국왕에게 요청하는 사실 등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황룡국은 고구려와는 거의 독자적으로 통치되었음이 분명하다. 고구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해명을 살려서 고구려로 보낸 사실 등이 이를 증명한다. 황룡국은 고구려 연맹 속에 들어와 있었을 지라도, 독자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초기 고구려, 아마 태조왕 이전의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흡수되어 있었던 성읍국가나 부족세력도 처음에는 황룡국과 같은 상황으로 흡수되어 있었을 법한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보다 더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확실하게 복속되어져 갔다.

태조왕 이전과는 달리 태조왕대 이후에는 성읍국가에 대한 정복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성읍국가의 정복과는 대조적으로 태조왕대에는 다음과 같은 전쟁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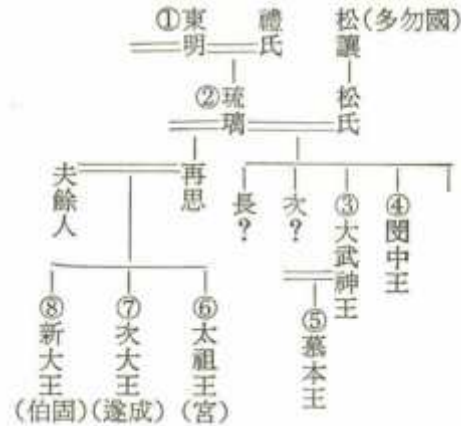
- ① 太祖王 4년에 東沃沮를 정복하고 이 땅을 취하여 城邑으로 삼았다.
- ② 태조왕 53년에 왕이 將師를 漢의 遼東으로 파견하여 6縣을 치자, 태수인 耿夔가 출병하여 저항하였다.
- ③ 태조왕 66년에 왕이 穢貊과 더불어 漢의 玄菟와 華麗城을 공격하였다.
- ④ 태조왕 69년에 韓의 幽州刺史 馮煥과 玄菟太守 姚光, 遼東太守 蔡諷 등이 來侵해 오자, 왕은 동생인 遂成으로 하여금 三千人을 거느리고 玄菟·遼東 2郡을 공격하여, 그 성곽을 불사르고 二千餘人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 ⑤ 태조왕 94년 秋 8월에 왕은 漢의 요동 西安平縣을 공격하여 帶方令을 죽이고, 樂浪太守의 처자를 사로 잡았다.

太祖王代 이후 성읍국가에 대한 정복기사가 없는 것은 연맹왕국으로서의 확장이 끝나고, 정복국가 체제를 정비해가는 것을 의미해 준다. 따라서 朱那나 藻那에 대한 정복기사는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흡수되어, 거의 독립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부족세력을 연맹왕국 속에 완전히 복속시켜가는 모습을 반영해준다. 이후 확대된 연맹왕국의 영역 내에 왕의 군대를 파견하여 그 지배권을 확실히 하면서 대의적으로 정복국가 체제를 정비해 갔다. 태조왕대에는 고구려 연맹왕국 이외의 지역인 沃沮를 정복하여 그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그리하여 넓혀진 영토와 정복국가로서의 정비된 체제를 기반으로 漢郡縣과의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주도해 갔다.

태조왕의 등장은 고구려 연맹왕국이 정복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실 태조왕대는 고구려 초기의 지배세력이 교체되었음을 알려 준다. 태조왕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초기의 王室世系를 제시하면 다음 <표 5> 와 같다.

<표 5>

高句麗 初期의 王室世系



우선 慕本王이 杜魯에 의해 살해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태조왕의 등극은 고구려의 지배세력이 교체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말하자면 태조왕계는 모본왕을 축출하고 고구려의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셈이다.

태조왕은 琉璃王子인 再思의 아들로 되어 있어서 고구려 초기의 왕실세계 속에 들어있지만, 사실은 주몽에서 유리왕이나 大武神王·閔中王·慕本王으로 이어지는 王室世系와는 다른 이질집단이었을 듯하다. 주몽은 姓이 高氏로 되어 있지만, 그의 부친은 解慕漱이며³⁰⁾ 유리왕에서 모본왕에 이르기까지의 고구려 왕족은 解氏였음이 분명하다.³¹⁾ 그런데 태조왕의 이름은 高宮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태조왕계는 高氏였음이 분명하다.³²⁾ 태조왕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고구려 왕실이 解氏부족에서 高氏부족으로 바뀌게 되었다.

태조왕의 부친인 재사는 유리왕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몽이 대소의 형

30) 《三國遺事》권1, 紀異 1 高句麗條에 東明聖王의 姓을 “本性解也 今自言是天帝子 承日光而生故自以高爲氏”라고 註記되어 있다. 朱蒙의 本姓은 解氏이지만, 뒤에 高氏로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31) 琉璃王에서 慕本王까지의 家系에 일부 混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閔中王이 大武神王의 동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三國遺事》에서는 大武神王의 아들로 나와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대체로 家系의 傳承에 크게 이상한 면을 찾을 수 없다. 大武神王의 이름이 解朱留이며, 閔中王은 解色朱로, 또한 慕本王은 解魯이다. 이해보면 아마 朱蒙에서 慕本王에 이르는 초기 고구려 王室은 解氏部族에 의해 장악되었음이 분명하다.

32) 《三國史記》권15, 高句麗 太祖王 94年條에 “案海東古記 高句麗國祖王高宮 以後漢建武二十九年癸巳 卽位 時年七歲 國母攝政”이라 하였다. 《海東古記》에서는 太祖王을 고구려 國祖王으로 기술하였으며 姓을 高氏라 하였다. 이해보면 太祖王이 高氏로서 國祖로 인식되었으며, 그리하여 高氏姓이 고구려 王族姓으로 비로소 자리하게 되었을 법하다.

제들에게 쫓겨 南下할 당시에 흡수된 부족장이었다. 주몽은 再思에게 克氏를 내렸다. 그러므로 재사는 주몽의 家系에 포함될 수 없었던 인물이지만, 고구려 연맹왕국을 성립시킬 당시에 왕실에 버금가는 세력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사의 가계는 태조왕이 등극하면서 초기 고구려의 왕실세계 속에 투입되어 체계화 되었을 것이다. 태조왕은 비록 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94년간 재위에 있었다. 그 이유도 역시 그의 가계가 초기 고구려 왕실세계 속에 임의로 끼어들었던 때문에서였을 것이다. 그럼으로 재사가 유리왕의 아들로 기록된 것은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³³⁾

태조왕의 등장이 고구려 왕실 내에 지배부족 세력의 교체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解氏部族을 대신하여 高氏部族이 왕족으로 자리하는 사실은 고구려 왕족이 涓奴部에서 桂婁部로 바뀌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慕本王을 죽인 杜魯가 慕本人이었고, 또한 죽은 慕本王을 慕本原에 장사한 사실로 미루어, 무력으로 해씨부족을 제압하면서 등장하는 고씨 곧 桂婁部族은 모본지역에 세력기반을 가졌을 법하다.³⁴⁾ 태조왕은 즉위한 후 東沃沮를 경략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두만강 유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모본지역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태조왕계는 桂婁部의 세력근거지인 두만강유역을 확보하고 있었으며,³⁵⁾ 그 곳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鐵로써 만든 鐵製무기나 철제농기구를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하여 정복국가 체제를 갖추어 갔다.

고구려 개국신화가 영웅전설적 성격을 갖는 것은 태조왕계가 등장하여 정복국가 체제를 갖추어 가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³⁶⁾ 또한 태조왕의 어머니는 夫餘人이며 태조왕계가 내려가는 동안 고구려와 부여는 제휴하고 있다.³⁷⁾ 태조왕대 이전 유리왕에서 모본왕에 이르는 동안 고구려와 부여는 서로 심하게 다투고 있다. 그리하여 대무신왕은 부여를 정벌하여 帶素王을 죽일 정도로 심한 타격을 가하였다. 親夫餘的 성향을 가진 태조왕계가 등장한 분위기 속에 고구려 개국신화는 朱蒙과 柳花始祖傳承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면서 영웅전설적 성격을 크게 내세웠다.

33) 李鍾泰, 〈高句麗 太祖王系の 登場과 朱蒙國祖意識의 成立〉(《北岳史論》2, 國民大 國史學科, 1990) p. 79.
 34) 이 점은 再思 등이 毛屯谷 부근에서 朱蒙과 합류한 사실과 무언가 연결됨직하다. 毛屯은 慕本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쩌면 同一한 지역을 漢字音으로 기록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再思, 곧 太祖王系는 慕本지역에 상당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35) 李龍範, 〈高句麗의 成長과 鐵〉(《白山學報》1, 1966) p. 63.
 36) 이 점은 李鍾泰, 앞의 논문 pp. 90~98에서 “고구려 태조왕계는 주몽설화의 구성요소를 자신들의 정치적 성격과 연관시켰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37) 李鍾泰, 위의 논문 pp. 84~89.

V. 地神族 信仰의 흡수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지신족신앙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金蛙 시조전승과 하백의 딸인 유화 시조전승이다. 그 중 유화 시조전승은 주몽 시조전승과 함께 고구려의 개국신화를 구성하는 근간을 이루었다. 때문에 유화 시조전승은 고구려 개국신화 중에 흡수된 지신족신앙으로서는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속에 실려있는 고구려 개국신화 속의 유화전승은 소략한 편이며, 오히려 〈동명왕편〉 속에 나오는 유화전승을 통해 그 풍부했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동명왕편〉이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유화 시조전승에 관한 기록을 비교검토하면, 하백으로 표방된 지신족신앙이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어떻게 흡수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유화 시조전승은 본래 地母神으로서 농업신적 성격을 강하게 지녔는데,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흡수되면서 지모신앙적 성격은 거의 배제되었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개국신화 중에 유화가 지모신앙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왕자(帶素) 및 諸臣이 주몽을 죽이고자 모의하였다. 주몽의 어머니가 가만히 이를 알아서 고하기를 ‘國人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써는 어디를 가든지 가능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머물러 지체하다가 옥을 당하지 말고 멀리 떠나라’고 하였다(《三國史記》 권13, 高句麗 始祖 東明聖王 卽位年條).

유화부인의 권고로 무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간 주몽은 엄사수가에서 河伯神의 도움을 받아, 자라와 물고기를 다리로 삼아 강을 건너고 있다. 그런데 유화가 주몽의 위험을 미리 알았다는 표현을 ‘陰知’라 했는데, 그것이 유화가 주몽을 도운 내용이다. 물론 이때의 ‘陰知’라는 표현이 유화의 능력을 나타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반드시 지모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몽이 자라와 물고기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外祖인 하백의 능력을 보다 더 선명히 보여주는 것은 지모신앙과 연관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동명왕편〉에서는 주몽이 南下하면서 황급결에 떠났기 때문에 보리종자를 가지고 오지 못했으므로, 神母인 유화가 신의 사자인 비둘기를 통해 주몽에게 보리종자를 건네주는 내용이 장황하게 나타나 있다. 그것은 유화의 지모신적 존재를 크게 부각한 셈인데,³⁸⁾ 그러한 신앙요소가 《삼국사기》의 고구려 개국신화 속

38) 金哲堉, 〈東明王篇에 보이는 神母의 성격〉(《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1971;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p. 37.

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모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大地이거나 江이었음을 생각할 때³⁹⁾ 하백은 유화 시조전승의 지모신적 성격을 강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다. 고기와 자라에 관한 내용도 《삼국사기》의 고구려 개국신화나 〈동명왕편〉 중에 모두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동명왕편〉에는 주몽이 업사수를 건너서 나라를 세우고는 이웃의 송양국을 병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동명성왕 2년에 송양국이 항복해 오자, 그 땅을 多勿都로 만들고 松讓을 그 주인으로 봉하고 있다. 그런데 송양이 항복해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의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松讓王이 분개하여 주몽과 더불어 언변으로 싸우고 또 서로 활을 쏘아 재주를 시험하였으나 능히 대항하지 못했다(《三國史記》 권13, 高句麗 始祖 東明聖王 卽位年條).

같은 내용에 대해 〈동명왕편〉에서는 주몽이 사슴을 잡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울음에 저주를 신음으로써 장마비가 쏟아져 내리게 하여, 마침내 송양국을 물에 잠기게 하였다는 내용이 장황하게 전개되어 있다.

하백이 장마와 가뭄을 관장하고 있음은 그 자체가 지모신적 신앙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송양국의 병합에 관한 내용은 본래 유화 시조전승의 지모신 신앙을 배경으로 전개된 것인데, 그것이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흡수되면서 활을 쏘서 재주 내기를 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 활을 잘 쏘는 것은 주몽 시조전승에서 중요시되었던 신앙이었다. 말하자면 유화 시조전승은 지모신 신앙을 강하게 내세운 것이었는데,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흡수되면서, 그러한 성격이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주몽 시조전승이 유화 시조전승을 흡수하여 고구려 개국신화가 성립되었는데, 본래 그 두 시조전승은 朱蒙부족과 柳花부족이 각각 성립시켰던 것이다. 주몽 시조전승과 유화 시조전승은 天帝子인 解慕漱를 매개로 연결되었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는 해모수와 유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하백의 딸이며 유화라 부른다. 동생과 더불어 놀고 있을 때에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라 하면서, 나를 熊心山 아래의 鴨綠邊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통하고는 가서 오지 않았다. 부모가 중매인도 없이 사람을 따라갔다고 나무라고는, 드디어 優渤水에 유배보냈다고 했다(《三國史記》 권13, 高句麗 始祖 東明聖王 卽位年條).

拙稿, 〈檀君古記의 이해방향〉 p. 21.

39) 地母神신앙을 이루는 地神族신화에서는 강이나 동굴, 우물, 해변 등이 大地와 얽혀 종종 神의 탄생이나 출현지역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같은 내용을 〈동명왕편〉에서는 상당히 길게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 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하백의 세 딸인 유화, 萱化, 華化가 清河에서 나와 熊心淵에서 놀았다.
- ② 해모수가 말 채찍으로 땅을 그어서 구리 집과 술상을 만들어 여자들을 유인하고는, 술이 취하자 급히 나가 유화를 붙잡았다.
- ③ 하백이 알고 중매도 없이 求婚함을 크게 꾸짖으니, 해모수와 유화는 龍車를 타고 하백의 나라에 이르렀다.
- ④ 하백이 해모수와 더불어 재주내기를 하였는데, 하백이 잉어가 되면 해모수는 수달이 되고 하백이 꿩이 되면 해모수는 매가 되었으며, 하백이 사슴이 되면 해모수는 승냥이가 되는 등 천제의 아들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 ⑤ 하백은 술자리를 벌리고 만취한 틈을 타서 딸과 함께 가죽수레에 넣어, 龍車에 싣고 하늘에 오르게 하였다.
- ⑥ 수레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 전에 해모수는 술이 깨어, 여자의 황금비녀로 가죽수레의 구멍을 뚫고 홀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 ⑦ 하백이 딸을 책망하여 입술을 당겨 석자나 늘여 놓고는 優渤水 속으로 추방하였다.
- ⑧ 어부가 물속에 이상한 짐승이 돌아다닌다고 함으로, 金蛙王이 쇠그물로 여자를 얻고는 그 입술을 세번 잘라내게 하여 말을 하게 하였다.

〈東明王篇〉에는 유화와 그의 부친인 하백의 나라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熊心淵이나 清河 또는 優渤水 등과 관련된 하백의 신앙은 본래 지모신앙을 배경으로 성립된 것임이 분명하다. 잉어나 수달의 등장도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만 하백신앙 속에는 가부장적 모습과 함께 꿩이나 매나 사슴, 승냥이 등이 등장하고 있다. 아마 이 점은 하백신앙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본래의 그것은 지모신으로 이어지는 시조전승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다음 기록은 그런 면을 이해하게 한다.

귀신을 공경하며 淫祠가 많았다. 두 곳의 神廟가 있는데 하나는 夫餘神이며 나무를 조각하여 婦人像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高登神인데 이는 시조인 부여신의 아들을 말한다. 아울러 官司를 두고 사람을 파견하여 守護하게 하는데, 대체로 하백의 딸과 주몽을 말함이다.⁴⁰⁾

40) 《北史》高句麗傳에 “敬鬼神 多淫祠 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像 一曰 高登神 云是其始祖 夫餘神之子 竝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朱蒙云”이라 하였다.

하백신앙은 夫餘神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구려에는 두개의 신묘가 있었고 그 각각에 부여신과 高登神을 모셨는데, 부여신은 유화이며 고등신은 주몽이라 하였다. 그중 부여신은 부인상으로 모셔졌으며 시조로 추앙받고 있었다. 이것은 유화 시조전승이 하백신앙의 본모습일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면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흡수된 유화 시조전승은 女系祖先을 내세웠으며, 지모신신앙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 풍부한 신앙요소를 갖추고 있었을 법하다. 주몽 시조전승 속에 흡수되어 고구려 개국신화로 체계화되면서, 유화 시조전승 속의 지모신신앙의 모습은 퇴색되어 갔으며 그 내용도 소략하게 전해지게 되었다.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는 유화 시조전승 외에도 많은 시조전승이 흡수되었으며, 그것은 대체로 지모신 신앙을 가졌을 법하다. 또한 고구려에는 隧神이 있었다. 東盟이라는 祭天의례가 행해질 때 고구려에서는 天神 외에 따로 나라의 동쪽에 있는 大穴에서 隧神을 맞아다가 제사하였다. 隧神은 동굴신이었으며 婦人像으로 모셔졌고 부여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⁴¹⁾ 아마 수신은 지모신으로 숭배되었을 법하다. 고구려의 東盟제의에서 천신과 함께 따로 제사하는 隧神은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흡수되어 들어온 지신족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 개국신화의 根幹을 이루게 된 유화 시조전승은 그 속에 흡수되어 들어온 다른 시조전승과는 달리, 후대의 지모신 신앙요소를 비교적 많이 전승시키고 있다. 반면 다른 지신족신앙은 유화 시조전승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간추려진 상태로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흡수되어 있다. 금와 시조전승에서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금와 시조전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여왕 解夫妻가 아들이 없자 山川에 제사하여 後嗣를 구하였다. 그가 탄 말이 鯤淵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마주 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王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 그 돌을 밀어 보니, 거기에 금색의 개구리 형상을 지닌 한 어린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이 준 것으로 기뻐하며, 그를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金蛙라 하였다. 그가 장성하자 太子로 삼았다. 그뒤 왕은 재상 阿蘭弗의 勸誘에 따라 都邑을 迦葉原으로 옮기고 국호를 東扶餘라 하였다.

② 舊都에는 天帝의 아들이라 하는 解慕漱가 와서 都邑을 정하였다(《삼국사기》 권13, 高句麗 始祖 東明聖王 卽位年條)

금와는 解夫妻의 養子로 등장하고 있다. 해부루는 금와를 얻기 위해 山川에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보면, 지신족 신앙형태의 시조전승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41) 《三國志》魏書 高句麗傳에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 置於國東上 祭之 置木隧於神坐”라 하였다. 동굴과 관계된 신앙은 지모신신앙과 관계가 깊으며, 부여신이 나무로 깎아 만든 목각상이었음을 생각할 때, 같이 나무로 깎아 만든 隧神像도 婦人像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부루의 기도에 응하여 금와는 鯤淵 가의 바위 밑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신족신앙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해부루는 宰相인 阿蘭弗의 권유에 의해 迦葉原으로 옮기고 있다. 이 점은 주몽이 새로운 천지를 찾아 개척하여 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것과 비교하여 사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解夫婁나 金蛙집단은 解慕漱를 위해 미리 거주지를 옮기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주몽 시조전승에서와 같이 새로운 천지를 찾아 개척해 가는 면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금와 시조전승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지신족신앙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와 시조전승 외에도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는 많은 지신족신앙의 시조전승이 흡수되었다. 예를 들면 주몽이 南下하면서 동행한 烏伊·摩離·陝父나, 이들과 같이 새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천지를 찾아가는 도중에 만나서 같이 가게 되는 再思·武骨·默居 등도 지신족신앙의 시조전승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특히 재사가 입었던 麻衣는 종교적 성격을 띤 의복이며, 納衣도 검은색 옷으로 무당이 입었던 옷이었고, 水藻衣 역시 오리발이나 水生조류를 달아놓은 시베리아 무당의 옷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⁴²⁾ 재사나 무골·묵거가 모두 무당, 곧 제사를 주관한 부족장으로 파악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들은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흡수될 당시에 지신족 시조전승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몽은 재사와 무골·묵거에게 각각 克氏와 仲室氏·少室氏라는 姓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賜姓은 고구려 연맹왕국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 연맹 내에 흡수된 세력에게 내리고 있음이 흥미롭다. 다음 기록을 참고하기로 하자.

왕이 군사를 내어 부여를 칠 때 沸流水에 이르러 물가를 바라보니, 어떤 여인이 술을 들고 遊戲하는 것 같아서, 가보니 술만 남아 있었다. 그것으로 밥을 짓게 하였더니, 불을 지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데워졌다. 밥을 지어 온 군사를 배부르게 먹였다. 갑자기 한 장부가 나타나 이르기를 ‘이 술은 본래 내 집 물건인데 내 누이가 잃어버렸으나, 지금 왕이 발견하였으니 줘야 드리겠습니다’고 하므로 그에게 負鼎氏라는 姓을 내렸다(《三國史記》 권14, 大武神王 4년 12월條).

비류수 위에서 술을 들고 遊戲하는 여인의 모습은 女司祭가 祭儀를 주관하는 모습으로 이해된다.⁴³⁾ 저절로 데워진 술로 밥을 해서 온 군사를 배부르게 먹이는 모습

42) 李玉, 〈朱蒙研究〉(《韓國史研究》 7, 1972. 3) p. 75.

그러하여 이옥씨는 고구려에 3종류의 무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곧 흰옷을 입은 무당과 검은 옷을 입은 무당, 물의 세계 다시말해 死者의 세계로 여행할 수 있는 水下 무당이 있었다고 했다.

43) 강영경, 〈韓國古代社會의 女性—三國時代 女性의 社會活動과 그 地位를 중심으로—〉(《淑大史論》 11·12 합집, 1982) p. 171.

은 大地母神의 生育能力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女司祭와 지모신 신앙으로 이어진 후대 負鼎氏의 시조전승이었음이 분명하다. 大武神王은 부여를 정벌하러 가는 도중에 뒤에 부정씨로 불리우는 부족집단을 흡수하였으며, 그 부족장에게 賜姓하고 있다. 이 점은 주몽이 재사와 무골·묵거에게 성을 내리는 것과 흡사하다.

부정씨의 시조전승이 본래 지모신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재사와 무골·묵거 등도 부정씨의 시조전승과 비슷한 지신족신앙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주몽이 남하할 당시에 동행한 烏伊·摩離·陝父도 각각 지신족 계통의 시조전승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흡수된 지신족신앙은 세 부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유화 시조전승이다. 그것은 지모신적 신앙의 모습을 비교적 많이 간직하고 있다. 둘째는 금와 시조전승이다. 그것은 지모신적 신앙이 거의 탈락된 모습을 하고 있다. 셋째는 재사나 무골 등 주몽이 새 국가를 건설해 가는 도중에 결연된 인물들의 시조전승이다. 이들은 지모신적 신앙이 완전히 배제된 모습을 하고 있다.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흡수된 지신족 신앙계통의 모든 시조전승은 처음에 각각 독자의 풍부한 지모신 신앙을 간직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유화 시조전승이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흡수되기 이전에, 말하자면 〈東明王篇〉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양적으로 풍부하면서도 지모신의 생육능력을 강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담은 시조전승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던 것이 유화 시조전승은 주몽 시조전승과 함께 고구려 개국신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모신신앙을 나타내 주는 설화가 많이 생략되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지신족신앙으로서 손색없는 관념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또한 금와 시조전승은 解慕漱와 얽히었을 뿐 아니라, 해모수 시조전승을 내세우는 부족이 도래하기 이전에 유화 시조전승을 가진 부족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신족신앙 체계를 다소 남길 수 있었다.

반면 재사나 무골·묵거를 위시하여 烏伊·摩離·陝父 등도 각각 지신족의 시조전승을 가졌을 것이지만,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는 그러한 성격을 전혀 남기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고구려 개국신화가 영웅전설적 성격으로 형성되어진 것과 표리관계에 있다. 어쩌면 고구려 개국신화의 영웅적 성격은 고구려 국가가 연맹왕국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정복국가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위의 작은 성읍국가나 부족세력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흡수된 시조전승이 독자의 지신족신앙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나타날 수 없었다. 바로 이 점은 신라 건국신화 속에 흡수된 여러 시조전승이 본래의 신앙체계를 알려주는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동명왕편〉에서는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유리 시조전승이 상당히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점은 그것이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흡수되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던 것이 《삼국사기》의 高句麗本紀를 편찬할 때에 朱蒙 시조전승과 유리 시조

전승이 부자관계로 기술되면서, 年代記 史料로 각각 분리되어 기술되었다. 유리 시조 전승과 비슷한 양상으로 기술된 백제의 온조나 沸流 시조전승도 본래는 고구려 개국 신화 속에 흡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겠다.

琉璃나 溫祖 및 沸流의 시조전승이 독립된 신화체계를 이루게 되는 것은, 그들 집단이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거나 또는 그 내의 세력다툼에서는 패배했을지라도,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 국가를 건설해 가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면은 신라 건국신화 속에서도 나타난다. 곧 金闕智신화나 昔脫解신화가 다시 독립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다만 온조나 비류 및 유리 시조전승도 영웅전설적인 성격을 간직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새롭게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 음 말

고구려 개국신화는 東明型神話에 속하는 것 중 가장 풍부한 내용을 간직하였다. 그것의 주된 내용은 《三國史記》 속에 실려있지만, 〈東明王篇〉에는 보다 더 자세한 것이 실려 있다. 本稿에서는 고구려 개국신화의 모습을 비교적 소상하게 재구성하고 고구려 초기 사회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끌어내고자 한다.

고구려 개국신화는 英雄傳承의 성격을 지니는데, 사실은 동명형신화는 모두 영웅 전승적 성격을 지녔다. 다만 고구려 개국신화는 天帝의 아들인 解慕漱와 河伯의 딸인 柳花사이에서 태어난 朱蒙의 행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金蛙王의 왕자인 帶素형제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새로운 천지를 찾아 떠나가게 된다. 동명형신화 중 부여국의 개국신화로 이어질 수 있는 稷離國이나 索離國 시조인 동명 시조전승에는 天神과 地神의 관념이 고구려 개국신화와 비교하여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동명 시조전승에서는 天神의 존재가 氣로 표현되었는가 하면, 河伯女는 王의 侍婢로 나타났다.

다같이 영웅전승적 성격을 지닌다고는 하지만, 고구려 개국신화에서는 武士團과 農業神의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주몽이 南下하면서 같이 내려간 烏伊, 摩離, 陝父 등의 무리는 武士團의 성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중도에서 동행하게 된 再思·武骨·默居는 주몽이 거느린 무사단에 의해 흡수된 부족집단을 의미할 수 있다. 보리 종자를 건네주는 柳花는 地母神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농업신은 철제농기구를 사용하는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강조되었다.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는 對偶婚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곧 유화는 해모수와 정을 통하고는 다시 金蛙와 혼인하였다. 대우혼은 초기 농경사회가 여성 중심으로 정착됨으로써 생겨나는 母系制의 유풍을 알려준다. 주몽은 松讓王의 딸과 혼인하였지만, 부

여에 있을 때 禮氏 부인을 두고 있어서 가부장적인 혼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신라의 개국신화는 朴赫居世와 閼英의 一夫一妻制가 정착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고구려 개국신화는 모계적 遺習과 父系的 多妻婚이 엉겨주춤한 모습으로 얽혀 있는 過渡期的 성격을 지녔다.

고구려 개국신화는 家父長的 질서를 성립시켜가는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형성됨으로써 영웅전승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자연 그것의 성립은 고구려 초기사회의 지배세력이 바뀌면서 정복국가 체제를 성립시켜 간 太祖王系의 등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 태조왕계는 慕本王을 시해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왕실은 解氏부족에서 高氏부족의 지배로 바뀌게 되었고, 그것은 涓奴部를 대신하여 桂婁部가 왕족으로 된 사실을 가리킨다.

太祖王代까지 고구려가 연맹왕국으로서의 팽창은 일단락되었다. 태조왕은 정복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沃沮를 정복하였으며 漢郡縣과 빈번하게 전쟁을 수행하였다. 또한 태조왕의 母系는 夫餘人이어서 고구려와 부여는 서로 제휴하기에 이르렀다. 고구려 개국신화가 부여계의 동명형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영웅전승적 성격으로 갖추어지는 이유가 이런 데에서 찾아질 수 있다. 태조왕 이후 고구려가 정복국가 체제를 갖추면서 이전 연맹왕국의 영역을 확실하게 장악해가는 분위기 속에서 고구려 개국신화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고구려 연맹왕국 속에 편입된 성읍국가의 시조전승이 地神信仰의 모습으로 흡수되어 있다. 그러한 것으로 柳花 시조전승을 비롯해서 金蛙 시조전승을 들 수 있고, 또한 烏伊, 摩離 등 고구려 왕실로부터 성을 하사 받은 여러 部族 집단도 본래는 지신족신앙을 가졌다.

고구려 개국신화가 영웅전승적 성격으로 성립되면서, 여러 부족의 지신신앙은 거의 대부분 신화적 요소를 전승시킬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고구려 개국신화의 근간을 이루는 유화 시조전승은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전승시키고 있는데, 〈東明王篇〉과 비교하여 《三國史記》에 수록된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체계화된 유화 시조전승은 지모신앙적 내용을 탈락시키고 있다. 지모신앙으로서 풍부한 내용을 가졌던 여러 부족의 지모신앙은 초기 고구려 개국신화 속에 상당한 분량으로 전승되었을 법한데, 그것이 영웅전승으로 갖추어지는 과정에서 시조전승의 모습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 개국신화는 비록 영웅전승적 성격을 지녀서 그 속에 흡수된 여러 시조전승의 모습을 탈락시켜 갔을 지라도, 그것과 연관된 많은 시조전승이 함께 전해져 있다. 琉璃나 濫祚·沸流 시조전승이 바로 그런 것이다. 또한 그러한 시조전승은 대체로 동명형신화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다. 고구려 개국신화와 이들 시조전승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추구하고자 한다.